

정부 국정과제 접목 신규사업 발굴

전주시, 간부공무원 아이디어 발굴회의... 25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통해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접목한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조만간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에 발맞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논리개발과 보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포함된 전주시 관련 사업은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급속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합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또 국정과제를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을 찾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발전 사업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전주시 대응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할 수 있는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하고,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민선6기 전주

시가 추진해온 사업들 중에는 행정부의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전주시 발전을 이끌 추진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아이디어 응모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전주시청 기획예산과 3층)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야간 교통사고 예방 위한 '밝은 전북 만들기' 정책 추진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 도내에 있는 도로가 개선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등은 켜고 차선 휘도는 높게'라는 슬로건으로 '밝은 전북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밝은 전북 만들기'는 전북지역 도로가 타도에 비해 어둡다는 의견이 접수돼 도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도로를 밝게 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첫째 가로등 켜기, 둘째 노후차선 고휘도 차선도색, 셋째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넷째 발광형표지 설치 등 12개 항목의 교통안전시설 개선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가로등 1389개소, 차선도색 252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338개소, 발광형 교통시설물 171개소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장소로는 익산시 군익로 송학교차로로 약 1.3km구간에 있는 가로등 86개를 LED전등으로 교체하고 조도를 향상시켰다.

경찰관계자는 "밝은 전북 만들기를 올해 10월까지 남은 선정지에 대한 개선을 마치고 잔여 동시간 대비 교통사고 발생상황 등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최근 여성 폭행 시비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14일 전주원산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여성 폭행 전면 부인

경찰조사에서 "자해 막기 위한 행동" 설명... "모든 당직 내려놓겠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여성 폭행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자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산경찰서에서 5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심신하게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으며 자해 상황을 말리다가 상처를 입은 것이며 여성을 전혀 폭행한 바 없다고 전했다.

여성과의 관계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모든 당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김 의원이 모든 혐의에서 일관성 있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A씨(51, 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큰소리로 다투던 김 의원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체포됐다.

당시 현장은 물건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하고 김 의원을 수감 채워 연행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김 의원이 직업과 이름을 밝히지 않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그는 인근 병원에서 상처 입은 엄지손가락을 치료했다.

그는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수 많은 의혹을 뒤로 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민근 기자

독서대전 '인문사회학 강연' 진행

전주시, 9월1일~3일 유명 저자 11명 초청

전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국내 유명 저자 11명을 연달아 초청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주요프로그램인 인문사회학 강연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출판, 독서·도서 관련 240여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로,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된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인문사회학 강연은 첫날 김원의 세계신화연구소 소장의 '신화, 사랑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둘째 날에는 김용택 시인의 '책에서 세상을 배우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이명수 칼럼리스트 부부의 '기억과 치유', 광고전문가인 박용현 TBWA KOREA 대표의 '질문은 영혼의 산과술이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전북대 초빙교수의 '이제는 시민의 글쓰기다'를 주제

로 강연이 잇달아 열린다.

또한, 3일에는 정근식 교수의 '차별과 혐오를 넘어', 김서령 작가(패널 부회령 권현란)의 '여자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전주시는 올해 독서대전에는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저자들을 초청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진행되는 만큼, 더욱 풍성한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많은 분야의 인문·사회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독서대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의 도시 전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문사회학 강연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완산도서관(063-230-18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전주보건소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주시 표본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보건복지부 지정)와 협력해 실시하는 법정조사이자 국가승인통계로, 시민들의 주요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도출해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결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에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주시 33개 행정동 900

여 가구이며,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면접조사(전자조사표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진행)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항목은 18개영역, 201개 조사문항이다.

조사기간 중 조사원은 명찰이 부착된 복장(티셔츠)을 착용하고,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이번조사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원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술에 취해 후배 교수들 폭행한 부장교수 해임

전북의 한 대학병원 부장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폭행해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17일 같은 병원의 후배 교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A교수는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자

이들을 데리고 나가 싸움을 중재하려 했지만 후배 교수들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만취한 A교수는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폭행했다.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품위손상의 이유로 보직 해임했다. /이삼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